

『월남망국사』에 담긴 인물간의 대화 의도와 번역자 현채의 사유방식*

강미정(단국대)**

〈목 차〉

- | | |
|--------------------------------|-----------------------|
| 1. 서론 | 3. 『월남망국사』 번역 과정에 나타난 |
| 2. <월남망국사전록>에 담긴 인물간의
대화 의도 | 현채의 사유 방식 |
| | 4. 결론 |

1. 서론

1905년 11월 상해 광지서국에서 량치차오에 의하여 출간된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당시의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월남망국사』의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소개된 것은 1906년 황성신문에 7회 연재된 『독월남망국사(讀越南亡國史)』를 통해서이다. 1906년에 현채(玄采)는 『월남망국사』를 국한문혼용체로 번역하여 출간한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 S1A5A2A03926486)

** 단국대학교 전임 연구원. superego0308@hanmail.net

그리고 1907년에 주시경(周時經)이 순국문 번역본을 출간하였으며, 이상익도 1907년에 문장을 분절하여 가독성을 높인 순국문 번역본을 출간한다. 1908년 경향신문에는 『월남망국사』에 대한 비판적인 논평이 17회에 걸쳐 연재된다. 이처럼 1905년에 상해에서 출간되었던 『월남망국사』는 언론과 출판계를 통해 중요한 독서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렇지만 『월남망국사』는 식민통치로 인하여 억압받는 월남의 역사적 정황을 세밀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용인될 독서물은 아니었다. 게다가 현재, 주시경, 이상익 등에 의하여 번역된 『월남망국사』에는 광지서국판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멸국신법론>과 <일본의 조선> 등 제국주의의 교활한 침략 방식과 일본의 조선 핍박의 사례 등을 다룬 글들이 부록으로 들어가면서 애국계몽의 취지도 강화된다. 마침내 『월남망국사』는 일제강점기에 금서가 될 수밖에 없었고, 1909년 『월남망국사』의 발간 및 반포는 금지된다.

이러한 부침을 겪은 『월남망국사』에 대하여 기왕의 연구자들은 천주교권에서의 『월남망국사』에 대한 반응¹⁾, 한국 및 중국과 베트남 내에서의 『월남망국사』 수용 및 유통²⁾, 『월남망국사』의 번역에 대한 연구³⁾, 『월남망국사』를 통해 보는

- 1) 최기영, 『『越南亡國史』에 關한 一考察』, 『東亞研究』 6,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5, 487-506면; 이충호, 「1908년 경향신문에 게재된 『越南亡國史』에 대한 書評소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5, 129-151면; 최기영, 「한말 천주교회와 『越南亡國史』」, 『아시아문화』 1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393-418면; 김승태, 「한말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의 한국선교에 관한 연구 : 1898 - 1910」, 한신대학교 석사논문, 2000.
- 2) 우림걸, 「梁啓超 역사·전기소설의 한국적 수용」, 『한중인문학연구』 6, 中韓人文科學研究會, 2001, 66-94면; 박상석, 「베트남 문학 전근대에서 근대로 : 『월남망국사』의 유통과 수용」, 『淵民學志』 14, 연민학회, 2010, 81-104면; 장효정, 「한국의 『월남망국사』 수용 양상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2013; 강영심, 「1900년대 동아시아의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 유통과 수용-한국, 중국, 월남을 중심으로-」, 『梨花史學研究』 49, 이화사학연구소, 2014, 79-118면; 박용찬, 「근대계몽기 재전당서포와 광문사의 출판과 그 특징 연구」, 『嶺南學』 6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147-182면.
- 3) 정환국, 「근대전환기 언어 질서의 변동과 근대적 매체 등장 of 상관성 : 근대계몽기 역사전기물

동아시아의 지적교류⁴⁾ 등 다채로운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 가운데에서도 한국 내에서의 『월남망국사』 수용현상과 그 영향력에 관한 것은 주된 논의였다. 그에 따라 황성신문의 〈독월남망국사〉의 내용, 현재, 주시경, 이상익 등이 번역한 『월남망국사』, 경향신문의 서평 등은 매번 소개되었고, 『월남망국사』가 일제강점기 지식인에게 미친 영향력과 대중들에게 확산된 경로는 분명해진다. 나아가 국내에서 번역된 『월남망국사』는 조선의 애국계몽 취지에 따른 역사물로 공고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월남망국사』의 세세한 내용 분석과 처음에 국한문혼용체로 번역하였던 현재의 사유방식에 관한 논의는 주변으로 미루어진 경향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월남망국사』에서 찬술자인 량치차오가 판보이쩌우에게 제기하는 질문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본격적인

번역에 대하여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와 『이태리건국삼걸전(伊太利建國三傑傳)』의 경우, 『大東文化研究』 4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1-32면; 이종미, 「〈越南亡國史〉와 국내 번역본 비교 연구: 玄采本과 周時經本을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34, 중국인문학회, 2006, 499-521면; 송엽희, 「『越南亡國史』의 翻譯 過程에 나타난 諸問題」, 『語文研究』 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183-204면; 김주현, 「〈월남망국사〉와 〈의대리건국3걸전〉의 첫 번역자」, 『한국현대문학연구』 29, 한국현대문학회, 2009, 9-41면; 서여명, 「중국을 매개로 한 애국계몽서사 연구: 1905~1910년의 번역 작품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10; 고병권, 오선민, 「내셔널리즘 이전의 인터내셔널: 『월남망국사』의 조선어 번역에 대하여」, 『한국근대문학연구』 21, 한국근대문학회, 2010, 293-323면; 송명진, 「〈월남망국사〉의 번역, 문체, 출판」, 『현대문학의 연구』 42, 한국문학연구학회, 2010, 171-203면; 김남이, 「20세기 초 한국의 문명전환과 번역-중역(重譯)과 역술(譯述)의 문제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63, 민족어문학회, 2011, 141-172면; 한영균, 「現代 韓國語 胎動期의 多重 翻譯 敘事物에 대한 기초적 연구」, 『국어사연구』 19, 국어사학회, 2014, 125-169면; 허재영, 「근대 계몽기 량치차오 『음방실문집(飲水室文集)』 역술(譯述)의 의미」, 『우리말 글』 74, 우리말글학회, 2017, 245-268면.

- 4) 최박광, 「『월남망국사』와 동아시아 지식인들」, 『人文科學』 36,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7-23면; 윤대영, 「20세기 초 베트남 지식인들의 동아시아 인식 - 연대의식(連帶意識)과 자민족중심주의(自民族中心主義) 분석(分析)을 중심(中心)으로-」, 『東亞研究』 53,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7, 293-326면; 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베트남 인식」, 『朝鮮時代史學報』 58, 조선시대사학회, 2011, 139-169면.

논의는 없다.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월남망국사』를 출간한 현재의 번역본이 그 뒤 번역과정의 저본이 되었음에도 현재의 사유방식에 대하여 초점을 맞춘 경우도 한산하다.⁵⁾

이에 이 글에서는 『월남망국사』의 대화를 통하여 관찰되는 의도와 그러한 의도와 연관된 현재의 사유 방식을 논의해보려 한다. 특히 『월남망국사』에서 량치차오와 판보이쩌우의 대화가 중심으로 전개되는 부분은 『월남망국사』의 서두에 해당되는 〈월남망국사전록〉이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초점을 두어 대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는 『월남망국사』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래 내용을 생략하는 경우가 상당했는데, 어떤 의중에서 생략을 하게 되었는지 분석하면 번역 과정에 나타난 현재의 사유 방식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월남망국사전록〉에 담긴 인물간의 대화 의도

1905년 량치차오에 의하여 상해에서 발간된 『월남망국사』는 〈서(序)〉, 〈월남망국사전록(越南亡國史前錄(記越南亡人之言))〉,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 〈월남소지(越南小志)〉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서〉에 “을사 9월 음빙쑤”⁶⁾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해당 원고가 완성된 때는 1905년 9월임을 알 수 있다. 이 서문에서 음빙, 곧 량치차오는 이치는 사라지고 강한 권세가 전횡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나라가 몇이나 되겠느냐며, 『월남망국사』가 사람들에게 경계와 두려움을 환기시키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5) 이와 관련하여 광저서국관 『월남망국사』와 번역본 『월남망국사』간의 비교 연구들을 들 수 있지만, 그러한 연구에서 주로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서지의 확인, 문체의 특성, 유통의 상황,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맥락화 등이다. (정한국(2004), 이종미(2006), 송엽휘(2006), 서여명(2010), 송명진(2010), 김남이(2011), 현영균(2014) 등을 들 수 있다.)

6) 乙巳 九月 飲水 識

『월남망국사』는 판보이쩌우와 량치차오가 프랑스의 식민정책으로 인하여 꺾박받는 월남의 사태에 대하여 주고받은 대화가 기반이 된 저술물이기도 하다.⁷⁾ 그래서 『월남망국사』에 나타난 량치차오(찬술자)의 질문과 판보이쩌우의 답변에 담긴 의도는 책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월남망국사』의 여러 부분 중에서도 <월남망국사전록>이 두 사람의 질문과 답변의 간격이 조밀한 편이기에 그 의중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이에 <월남망국사전록>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

량치차오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월남인의 편지와 명함을 받고 필담을 나누다가 이틀 뒤 조용한 술집에서 다시 만나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한다.⁸⁾ 량치차오는 우선 판보이쩌우에게 월남에서의 탈출경로를 물었는데⁹⁾ 그에 대하여 판보이쩌우는 월남의 패망 후 프랑스 정부의 눈을 피하여 가짜 청나라 사람의 호적을 만들어 겨우 탈출하게 된 내력을 이야기한다. 량치차오는 애통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7) 박상석, 「베트남 문학 전근대에서 근대로 : 『월남망국사』의 유통과 수용」, 『淵民學志』 14, 연민학회, 2010, 83-84면. “판보이쩌우는 량치차오와 요코하마 바닷가의 작은 술집에서 만나 베트남이 프랑스의 압제 하에서 겪는 참상을 토로하였다. 판보이쩌우와 량치차오가 베트남 문제에 대해 나눈 이 대화를 바탕으로 『월남망국사』가 나오게 되었다.(중략)실제로는 <월남망국사> 1)~3)은 판보이쩌우가 쓴 것이고, 4)는 량치차오와 판보이쩌우의 대화를 량치차오가 기록한 것이다. 『월남망국사』를 량치차오의 저술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판보이쩌우와 량치차오의 공동 저술로 보는 것이 옳겠다.”

8) 판보이쩌우는 광둥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 량치차오를 찾아왔을 때에는 월남과 중국의 광둥 지방을 이십년 동안이나 왕래하여 광둥어를 대충하는 사람과 동반했었다. 그렇게 처음 만난 지 이틀 후 요코하마의 술집에서 둘이서만 만났다. 그리고 <월남망국사>에는 광지 편집부가 편집하고 월남망명객 소남자가 진술함(廣智編輯部 纂 越南亡命客巢南子述)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안명철·송엽희 역주,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16면, 32면 참고.

9) 월남의 피폐한 정황을 량치차오에게 전달한 판보이쩌우는 1905년 2월에 2인의 동지와 월남으로부터 출국하여 1905년 4월에 일본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판 보이쩌우가 량치차오를 만난 시기는 빠르면 1905년 4월 즈음이었을 것이다. 다음 두 번 「베트남에서의 판보이쩌우 연구현황」, 동아시아한문학회연구소 제3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문(2018.1.26.), 10면 참고.

내가 월남에는 아직 임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고 물었는데 손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을유년 전쟁에 프랑스 사람이 우리나라 임금 함의제를 남면 아프리카의 아이열 성으로 옮기고(중략)구품 이상의 벼슬과 열 번 이상 때리는 장형은 다 프랑스 관리에게 품해야 하니 우리 임금은 그 사이에 군더더기로 붙어 기생하는 이 같은 존재라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¹⁰⁾

판보이쩌우가 월남을 떠나와 량치차오를 만나게 된 경로만으로도 이미 월남 정권은 프랑스의 손아귀에 넘어 갔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량치차오는 월남 임금의 현재 상황을 판보이쩌우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 한다. 량치차오가 질문을 통하여 알고자 한 것은 프랑스에 대적할 지배층이 잔존하는지의 여부이다. 그렇지만 판보이쩌우의 답변에 나타나듯이 당시 월남의 임금은 이미 외딴 곳에 추방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는 “저는 손님을 진심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존경합니다. 귀국 중에 손님처럼 큰 뜻을 품은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지, 아니면 프랑스 사람의 노예가 되어 잔명을 보전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다.”¹¹⁾

월남 임금이 이미 허수아비가 되었음을 들은 후 량치차오는 이제 큰 뜻을 품은 자가 있는지 질문한다. 이는 백성들을 규합하여 프랑스에 대적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판보이쩌우는 월남에는 귀족, 장수의 후예, 이재민, 선비 등 프랑스에 맞설 수 있는 인물이 열에 여덟이 되고 그 이외에는 프랑스의 노예가 될 만한 사람이 열에 한둘이 될 것이라고 답한다. 이는 곧 봉기할 수 있는 월남인이 상당함을 말한 것이다.

나는 “슬프다! 대단하다! 손님의 말씀이 과연 이 같을진대 우리나라는 오히려 월남만도 못하여 부끄럽습니다. 월남에 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

10) 안명철·송엽희 역주,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16면.

11) 안명철·송엽희 역주,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19면.

데 나라가 어찌 망하겠습니까?” 라고 감탄하였다.”¹²⁾

량치차오가 중국이 월남만도 못하다고 한 것은 당시의 유럽열강과 일본의 겁박에 대하여 중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빗댄 것이기도 하다. 량치차오의 감탄어린 말에는 월남은 쉽사리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량치차오의 말을 들은 판보이쩌우는 비록 월남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강해도 20년의 압제 하에서 쉽사리 봉기할 수는 없으리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이에 량치차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나는 손님에게 물어봤다. “프랑스 사람이 무슨 재주로 편안히 앉아서 사십만이나 되는 월남 군사를 통제합니까?”¹³⁾

량치차오의 이 질문은 월남의 군사력이 사십만이나 된다면 프랑스에 맞서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증을 전한 것이다. 판보이쩌우는 그 뜻을 읽고 월남 내부에 있는 프랑스인들을 섬멸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외부로부터 압박이 들어온다면 전멸할 것이라고 답한다. 또한 프랑스인들이 잔인하게 월남사람들을 처형한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프랑스가 동방의 야만스러운 법으로 동방 사람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한다.

나는 또 말했다. “귀국 인심의 분열함이 이러하니 단체를 조직하여 회복하기를 도모하는 자가 있습니까? 또 손님 말씀으로 월남 백성의 기운은 넉넉하되 지혜가 부족하다 하시니 또 그대와 같은 지사들이 자제들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나중에 나라 일을 스스로 행하기를 계획하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¹⁴⁾

12) 안명철·송엽휘 역주,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21-22면.

13) 안명철·송엽휘 역주,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23-24면.

14) 안명철·송엽휘 역주,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24-25면.

이 질문에는 단체의 조직과 인재의 양성이 스러져가는 월남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이라는 량치차오의 생각이 담겨 있다. 판보이쩌우는 옛날에 진혜제가 배고픈 백성이 있다고 하니,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고 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월남의 실정을 모르고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판보이쩌우는 네 명만 모여도 순검이 달려들고 여행증을 몇 번이나 바꾸어서 검열 받지 않으면 간첩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단체의 결성과 인재를 유학 보내는 것도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현실임을 말한다. 또 한편으로 프랑스만 원망할 수도 없고 수백 년 동안 쌓인 썩은 정사를 방조한 월남의 잘못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인다.

판보이쩌우의 복잡한 심경을 접한 량치차오는 “우리가 스스로 애통해하지 않으면, 십년 이내에 우리를 애통해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애통해한다’는 것은 그저 슬픈 감정 상태에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 상황을 세상에 고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¹⁵⁾

이러한 취지를 염두에 둔다면 <월남망국사전록>에 나타난 량치차오의 질문은 『월남망국사』의 집필 이전에 이루어졌던 량치차오와 판보이쩌우의 실제 면담 상황과 겹쳐 볼 수도 있을 듯하다. 1905년 판보이쩌우는 월남 독립운동의 설계자 중 한사람이었던 응우옌타인의 지지를 받으며 일본에 가서 량치차오를 만나 필담을 나누고 일본의 유력가들과 교우하여 일본의 조력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군사 조력을 쉽게 얻을 수는 없었다. 낙담한 판보이쩌우는 량치차오를 다시 찾아가는데 그 때 량치차오는 판보이쩌우에게 방책을 알려준다. 그것은 “매우 극렬하고 비통한 문자로 귀국이 멸망에 이른 참상과 프랑스가 귀국과 인민을 멸망시키려 한 악랄한 음모를 잘 그려내어 세계여론에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선포된 것이 바로 『월남망국사』이다.¹⁶⁾

15) 량치차오의 이러한 말은 『월남망국사』의 서문에도 나타난다. 그는 서문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을 애통해하지 않고 남을 먼저 애통해 하는 것을 보면 나를 애통해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애통해 하는 마음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변하기를 바란다.” 안명철·송엽휘 역주,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14면.

이상을 정리해본다면, 〈월남망국사전록〉에서 량치차오와 판보이쩌우의 대화에 담긴 의중은 두 가지 방향에서 마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보이쩌우는 월남의 비극은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정부, 프랑스의 월남 장악과 횡포, 미래를 저당 잡힌 백성의 현실 등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내용을 전한다. 그리고 량치차오는 월남이 다시 일어나려면 백성을 규합할 지도자 혹은 정부, 프랑스인에 대한 월남인의 투지, 새로운 단체의 결성과 인재 양성의 전망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한다. 그러니까 량치차오는 그의 질문 속에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도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량치차오의 의중은 량치차오의 질문과 판보이쩌우의 답변의 순서로 이어지는 방향을 뒤집어 보면 쉽게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두 인물간의 대화는 한편으로는 월남의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월남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망국의 원인과 해결책이 함께 담겨 있다는 점에서 〈월남망국사전록〉은 목차상으로는 『월남망국사』의 서두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대단원이기도 하다.

3. 『월남망국사』 번역 과정에 나타난 현재의 사유 방식

〈월남망국사전록〉의 취지를 담고 출발한 『월남망국사』는 한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지식인 및 일반대중 그리고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읽어야 할 독서물이 된다. 『월남망국사』가 주요 저작물이 된 데에는 개화기의 지식인이자 량치차오의 사상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는 당시의 흐름과 량치차오의 근대애국계몽사상이 한국 애국계몽가들의 사상과 부합되는 측면이 복합

16) 황호덕, 「동아시아한문지식인의 반제국주의 연대와 투쟁-베트남 독립지사 판보이쩌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제3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문(2018.1.26.) 93-94면 참고.

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¹⁷⁾ 이처럼 당시의 지식유입과 확산의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관심이 되었던 『월남망국사』는 월남의 사태가 결코 먼 나라의 일이 아니며, 한국의 어두운 미래를 인지케 하고 궁극적으로 계몽과 구국의지를 북돋우는데 기여하게 된다.

『월남망국사』는 국내에 유입된 1906년부터 현재, 주시경, 이상익 등에 의하여 번역되었는데,¹⁸⁾ 처음에 번역본을 완성한 현재는 번역 과정에서 『월남망국사』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생략하는 등의 변개를 하였고, 이러한 변개가 이루어진 현재의 번역 현황은 주시경과 이상익 등의 번역본에도 그대로 이어진다.¹⁹⁾

현재가 변개한 부분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두에 놓인 <월남망국사전록>에는 량치차오의 『조선망국사략』 내용이 더 첨부되어 있다.²⁰⁾ 본문에 해당

- 17) 허재영, 「근현대(1880~1945) 한국에 수용된 중국 학술 사상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5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67-68면; 허재영, 「근대 계몽기 량치차오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 역술(譯述)의 의미」, 『우리말 글』 74, 우리말글학회, 2017, 256-258면.
- 18) 『월남망국사』의 국내 발간에 대한 내력은 선행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이 글에서는 최근 논문에 정리된 것을 참고한다. 박용찬, 「근대계몽기 재전당서포와 광문사의 출판과 그 특징 연구」, 『嶺南學』 6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165면. “1906.8.28.~9.3(황성신문 <독월남망국사> 연재 6회), 1906.11(현재 역 『越南亡國史』, 국한문 혼용본, 1907.5.27.재간), 1907.11.21.(이상익 역, 현공립 교 『월남망국스』), 1907.11.30.(주시경 역, 로익형 서, 『월남망국스』, 국문본, 1908.3.10.(2판), 1908.6.15.(3판))”
- 19) 1906년 현재에 의하여 국한문혼용체로 번역본이 출간된 이후, 주시경, 이상익 등이 뒤를 이어 순국문체로 번역본을 출간하는데, 주시경과 이상익이 저본으로 한 것은 량치차오가 찬술한 『월남망국사』가 아니라 현재가 번역한 『월남망국사』이다.
- 20) 다음 논문에서는 <월남망국사전록>에 <조선망국사략>이 첨가되면서 갖게 되는 의미에 대하여 언급한다. 정환국, 「근대전환기 언어 질서의 변동과 근대적 매체 등장 상관계 : 근대계몽기 역사전기물 번역에 대하여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와 『이태리건국 삼걸전(伊太利建國三傑傳)』의 경우」, 『大東文化研究』 4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15~16면. “원본 『월남망국사』에서 현재가 부연하거나 추가한 부분은 단 한 부분만 빼고는 없다. 그런데 이 유일하게 추가된 부분이 각별한 관심을 끈다. “금에 일년 이내에 일본이 ~침배되는 중국이리오?” 이 부분은 광저서국 원본에는 없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원본에만 없는 것이지 양계초 글의 한 부분이다. 바로

되는 〈월남망국사〉에서는 번역 과정에서 다른 부분에 비하여 생략되는 분량이 더 많다. 부록에 해당되는 〈월남소지〉는 원래의 내용 중에서 일부만이 번역되고, 그 대신 량치차오의 논설인 〈멸국신법론〉과 〈일본의 조선〉이 추가된다.²¹⁾ 이 가운데에서도 양적으로 생략이 많이 일어난 부분은 〈월남망국사〉이다. 그렇기에 〈월남망국사〉는 현재가 『월남망국사』를 어떤 태도로 번역했는지 관찰할 수 있는 주요한 부분이다.

〈월남망국사〉는 ‘월남의 망국원인과 그 실상’, ‘국망 시절의 지사 소전’, ‘프랑스 사람이 월남을 괴롭히고 약하게 하며 어리석게 한 사정’, ‘월남의 장래’ 등의 순서로 전개된다. 이 내용들 중에서 생략되는 주요 사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²⁾

첫째, 현재의 번역본에서는 월남 사태와 관련된 시, 속담, 노래 등의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²³⁾

그의 저작 『조선망국사략』의 〈조선위일본지조선〉의 부분을 부록한 것이다. 그런데 그냥 한 부분을 옮긴 것이 아니라 모두 145곳에서 발췌하여 엮었다. 현재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여 ‘조선멸망사’라고 하면서 양계초의 입을 빌어 조선의 작금의 상황을 규정한다.”

21) 이와 관련하여 정환국은 “번역 『월남망국사』는 『음빙실문집』에 들어 있는 월남과 조선 관련 그들을 한곳에 모아 한문헌토 형식으로 엮은 셈이다.”라고 한 바 있다. 정환국, 「근대전환기 언어 질서의 변동과 근대적 매체 등장의 상관성 : 근대계몽기 역사전기물 번역에 대하여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와 『이태리진국삼걸전(伊太利建國三傑傳)』의 경우」, 『大東文化研究』 4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15면.

22) 이와 관련하여 다음 논의도 참고할 수 있다. 이종미, 「〈越南亡國史〉와 국내 번역본 비교 연구 : 玄采本과 周時經本을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34, 중국인문학회, 2006, 515면. “『월남망국사』 원문과 국내 번역본을 비교해보니 의외로 번역본에서 그 내용 중에 번역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도 분량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원문에 있는 내용을 현재본과 주시경본의 번역하지 않은 부분은 시 격언 등의 인용구, 월남 인물의 소개, 프랑스에 대한 비판 등의 내용으로 귀납시킬 수 있다.”

23)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광지사국판 『월남망국사』의 경우에는 『역주 월남망국

원나라 때에 월남 사람 영걸 진국준과 진광계가 달인 사람과 싸워 원나라 장수 사도를 죽이고 원나라 태자 오마아를 사로잡아 경성으로 압송할 때에 한 시가 있어 이르기를, “창을 장양도에서 빼앗고 적을 함자관에서 잡았다 태평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해야하고 강산을 오래토록 지켜야 한다.” 라고 하였다.²⁴⁾

元時에 至호야는 陳國峻 陳光啓는 越南 人傑이라 韃人과 戰호야 元將 唆都를 戮호고 元太子 烏馬兒를 虜호얏스니²⁵⁾

위는 ‘월남의 망국원인과 그 실상’의 앞부분에 실려 있는 월남의 역사에 관한 내용이다. 월남의 장수들이 원나라 태자를 압송한 사적에 대한 내용을 전개하면서 판보이찌우는 그와 관련한 시를 소개했지만, 현재는 그 시를 번역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의 내용을 보면 월남의 적인 태자를 압송하는 상황을 그대로 옮겨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는 상황의 유사성에 기인하여 반복되는 표현에 해당되는 위 시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와 유사한 사례가 거듭 관찰되기 때문이다.

완고가 의병 천여 명을 모아 동경을 회복하려고 하다가 프랑스 사람에게 잡혀 자기의 배를 자기의 칼로 찌르니 당장 죽지 않아서 다시 혀를 스스로 끊고 죽었다. 어떤 의인이 시를 지어 그를 애도하였다. “하늘과 땅에 맹세하여 붉은 창자가 흘러내리고 강산에 격분하여 붉은 혀를 내민다.” 완고가 죽은 후에 프랑스 사람이 제 손으로 죽이지 못함을 유감으로 여겨 완고 시체의 머리를 베어 효수하더라. 얼마 경과하지 않아 여러 성이 잇따라 함몰되었다.²⁶⁾

사』(안명철·송엽휘 역주, 태학사, 2007.)를 현재의 『월남망국사』는 한국학문헌연구소 편(1979), 『한국개화기총서-역사 전기소설』 제5권, 1979에 수록되어 있는 현재의 『월남망국사』(광무11년 5월 27일) 재간본을 주요 자료로 한다.

24) 안명철·송엽휘 역주,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33면.

25)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개화기총서-역사전기소설』 5, 玄采 譯, 『越南亡國史 附滅國新論』, 서울아세아문화사, 1979, 20면.

阮高니 黨千餘를 聚集호야 省城을 謀復호다가 法人의게 被擒호야 手刀로 其腹을 自割호니 不死호는지라. 다시 其舌을 自斷호야 死호니 高가 死호미 法人이 오히려 自手로 殺害치 못함을 恨호야 其首를 斷호야 梟示호고 未幾에 諸省이 相繼淪陷호더니²⁷⁾

위 내용은 ‘월남의 망국원인과 그 실상’에 있는 완고라는 월남 의병장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완고의 죽음을 애도한 시를 보면,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의 상황이 반복되면서 극대화되고 있다. 현재가 보기에 이러한 시는 상황의 반복이면서 강조적 표현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구체적 상황이 번역되었기 때문에 사건의 반복과 강조에 해당되는 시가 문맥상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는 생략되고 그 뒤에 완고의 시체를 훼손하는 프랑스 사람들의 잔혹함이 바로 이어진 채로 번역은 마무리된다.

프랑스 순찰이 삼일동안 계속 삼엄하게 하늘을 경계하여 백성들은 낮에 는 해를 보지 못하고 밤에는 달과 별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더욱 곤궁해지니 프랑스 관리한테 갖가지로 애걸하여 그 마을의 하늘을 도로 찾아오기를 허락해달라고 하였다. 정말로 처자와 집과 땅을 다 팔아 세금을 낸 뒤에야 프랑스 순찰이 돌아가고 백성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속담이 있다. “하늘이 없으면 정말로 고통스럽다. 역시 하늘이 있는 것이 좋더라. 하지만 아내와 자식은 어찌하느냐? 땅도 확보할 수 없다. 나는 저당 잡힌 내 하늘을 도로 찾아왔다. 하지만 그 하늘마저 영구한 것이 아닌 것 같다.”²⁸⁾

虎狼과 如호 法兵 數百이 三日을 把守호니 該村民이 甌 水洩不通호야 晝에 日光을 不見호고 夜에 旣 月星을 望치 못할지라. 村民이 크게 窮乏호야 法兵의게 萬般 哀乞호야 該村上에 一片 天을 贖回호다 호고 甌 妻子를

26) 안명철·송엽휘 역주,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38면.

27) 한국학문헌연구소편, 『한국개화기총서-역사전기소설』 5, 玄采 譯, 『越南亡國史 附滅國新論』, 서울아세아문화사, 1979, 24면.

28) 안명철·송엽휘 역주,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65면.

賣호고 家屋과 田地를 賣호야 搜銀을 淸賑호니 法兵이 이에 回去호고.29)

위 내용은 ‘프랑스 사람이 월남을 괴롭히고 약하게 하며 어리석게 한 사정’에 들어 있는 것으로 프랑스인의 압제 때문에 풍비박산된 한 마을의 일화이다. 그 마을의 사태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인들이 세금 명목으로 수탈을 횡행하자 힘에 부친 마을 사람들은 자기 마을을 감독하는 프랑스 보호관에게 세금이 과중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프랑스 감독관은 도리어 하늘까지 저당 잡으면서 병사들을 보내어 마을 사람들을 집안에 유폐시켰다. 집안에 갇히고 만 마을 사람들은 처자식과 땅을 모두 팔아 세금으로 바친 뒤에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현재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프랑스 병사들을 여유나 호랑이로 비유하면서 마을에 일어난 비극을 자세하게 옮겼지만 그와 관련된 속담 부분은 생략한다. 이는 비극적 사태를 자세하게 번역했기에 반복되는 내용에 해당되는 속담은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병정들은 반드시 프랑스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병정들이! 병정들이! 월남에서 태어나고 월남에서 자랐구나! 어찌 되었든 지 간에 너희들은 월남 사람이다 프랑스 사람이 와서 가혹한 세금을 받는다. 백성들을 못 살게 한다. 프랑스 사람이 너희들한테 은혜를 주느냐? 너희들의 형제가 사라진다. 너희들도 먹을 것이 없다. 병정뿐만 아니라 프랑스 사람의 통역, 비서, 종노릇 하는 자들이 모두 월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병정들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30)

故로 鍊兵이 每日에 軍歌를 唱호미 其意가 다 法人을 戮殺殲盡호다는 語호 此同仇敵愾호야 法人을 殲코자 함은 다만 鍊兵뿐 아니라 法人의 通辯과 至於法人의 書記와 法人의 陪丁이 다 越南 人種이호 此諸人이 다 鍊兵과 同心이라.31)

29) 한국학문헌연구소편, 『한국개화기총서-역사전기소설』 5, 玄采 譯, 『越南亡國史 附滅國新論』, 서울아세아문화사, 1979, 41면.

30) 안명철·송엽휘 역주,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90면.

위는 ‘월남의 장래’에 들어 있는데, 프랑스인들에게 소속된 월남의 병사들이라도 양심을 간직한 자들이므로 프랑스를 돕지 않고 월남을 도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월남 병사들이 프랑스의 소속하에서 꺾박당하고 언젠가는 프랑스를 치기 위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번역하였지만, “병정들아~”로 시작되는 노래는 생략하고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노래가 생략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每日에 軍歌를 唱호미”가 있기 때문이다. 원문과는 달라졌지만 매일 군가를 부른다는 것을 통하여 병사들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 분명하게 전한다. 또한 그 노래의 내용이 “法人을 戮殺殲盡한다는 語오”이기에 원래 실려 있는 노래보다 더 강한 살기를 띠기까지 한다. 이처럼 현재는 생략에 머물지 않고, 원래의 의미를 심화 확장시키기도 한다.

둘째, 현재의 번역본에서는 월남 내에서 의병활동을 했던 20인 중에서 10인이 생략된다. 광저서국판 『월남망국사』의 〈월남망국사〉의 두 번째 항목인 ‘국망시절의 지사 소전’에는 완벽(阮碧), 무유리(武有利), 두회료(杜輝僚), 송유신(宋維新), 완계엄(阮季淹), 완돈절(阮敦節), 정문질(丁文質), 완효(阮効), 반백선(潘伯扇), 여충정(黎忠庭), 진유(陳猷), 범찬(范纘), 여녕(黎寧), 하문미(何文美), 완사(阮仕), 완유정(阮有政), 완춘온(阮春溫), 반정봉(潘廷逢), 고승(高勝), 완등(阮橙) 등에 대한 일화가 들어 있다.³²⁾ 그런데 현재가 번역한 해당 부분에서는 10명은 생략되고 완벽(阮碧), 무유리(武有利), 완돈절(阮敦節), 정문질(丁文質), 완효(阮効), 반백선(潘伯扇), 완사(阮仕), 반정봉(潘廷逢), 고승(高勝), 완등(阮橙) 등 10명에 대한 내용만이 번역되어 있다. 이처럼 ‘국망시절의 지사 소전’의 경우는 생략된 분량이 상당하다.³³⁾ 생략된 인물들의

31) 한국학문헌연구소편, 『한국개화기총서-역사전기소설』 5, 玄采 譯, 『越南亡國史 附滅國新論』, 서울아세아문화사, 1979, 61-61면.

32) 이외에도 완문표, 완신 등도 언급되지만 그들은 프랑스의 사냥개로 의병지사가 아니다.

33) 등장인물 20명 중에서 10명만 소개하면서 다른 부분의 생략된 분량과 비교할 때에 <2국망시절의 지사 소전>에서의 생략이 많은 편이다. 이에 참고가 될 것은 전체 분량에서 얼마만큼의 생략이 이루어졌는지 논의한 다음 논문이다. 송엽희, 『『越南亡國史』의 翻譯 過程에 나타난 諸問題』, 『語文研究』 3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196면.

일화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휘료는 무유리와 월남 회복을 위해 공모했으나 일을 실천하기도 전에 프랑스인에 의하여 감금되었고 나중에 풀려난 뒤 어머니의 상을 치른 후 음독자살했다. 송유신은 의병을 일으켰지만 자신의 문지기에게 배신으로 프랑스인에게 잡혀 효수를 당했다. 송유신과 함께 의병활동을 펼치고자 했던 완계엄도 뜻을 펼치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다. 여충정, 진유는 둘다 광의 사람이었는데 프랑스에 맞서 싸우다가 프랑스의 사냥개 노릇을 하던 완신의 모함으로 프랑스인에게 잡혀 죽었다. 범찬은 의병을 일으켜 삼년동안 싸우다가 죽었는데 프랑스인이 나중에 그의 무덤까지 훼손했다. 여녕은 의병을 일으켜 싸우다가 병사하자, 프랑스인이 그의 촌락을 공격하여 형제들까지 죽였다. 하문미는 프랑스 군대에 들어가 간첩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중상을 당하자 자살하였고, 프랑스인이 그의 무덤을 파서 효수하였다. 원유정과 완춘운은 예안 진사 출신인데 프랑스인에게 잡혀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생략된 10명은 프랑스인에 의하여 잡힌 후 자살하거나, 의병활동을 하고자 했으나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기도 전에 죽거나, 의병활동을 치열하게 했어도 병으로 죽는 등의 양상을 보인다. 그에 반하여 현체가 번역하여 소개한 10명은 치열하게 의병활동을 벌이고 장렬하게 전사한 인물들이다. 그렇다면 맹렬한 저항을 했던 인물들이 주로 번역의 대상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저항의 강도가 약했던 인물들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대는 인물의 이력이 의병활동과 긴밀하지 않아 보일 경우에도 생략의 방식을 택한다. 예를 들면, 반정봉은 의병활동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라서 광지서국판 『월남망국사』에서는 그의 신체적인 특징과 이전의 이력까지 자세하게 기술되

“양계초의 원본과 대조할 때 <월남소지>의 내용이 대폭 삭제된 것 외에도 현체의 역본에는 25군데 총 85행 가량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이는 양계초의 책이 1면에 12행이므로 약 7페이지 가량 생략이 된 것이다. 생략된 내용은 일부 월남지사에 대한 소개와 같이 역자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번역하기 어렵거나 난해한 시가 따위의 어구, 양계초의 평언 가운데 주체성이 강한 것 등이다.”

어 있지만 현재의 번역본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³⁴⁾

셋째, 현재의 번역본에서는 프랑스에 대한 감정적 비판·월남 사태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 표현 등은 생략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 대한 비판이 적극적으로 옮겨지지 않은 데에는 일본의 압제와 검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내 출판계의 한계 때문이라는 요인도 생각할 수 있다.³⁵⁾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이유도 작용한 듯하다. 왜냐하면 현재는 프랑스가 얼마나 교활하게 월남을 야금야금 차지하고 월남인들에게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착취를 하며 악행을 저질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자세하게 번역했기 때문이다.

34) “완등과 고승 두 사람은 다 반정봉 휘하의 사람이었다. 반정봉은 서생이었을 때부터 벌써 세속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조정의 시험에서 일등을 하고 어사가 되었다.(중략) 반정봉이 죽으니 프랑스 사람이 그의 시체를 큰 상으로 구하는데 반정봉의 휘하에는 프랑스 사람한테 그의 묘지를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므로 프랑스 사람들이 산중에서 널리 찾으니 산적이 프랑스 사람에게 반정봉의 무덤 위치를 알려줬다. 프랑스 사람이 반정봉의 시체를 파냈고 그의 시체를 검사하여 손가락이 6개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관 뚜껑에는 함의제가 써준 글자 “양기경략대사평서대사(兩圻經略大使平西大使)”도 발견됐다. 결국 그의 시체에 기름을 발라 시신을 태웠고 또 누가 그 태운 재를 가지고 장사할까 염려하여 다시 그 재를 회오리바람에 날려 보내니 옛날부터 들어보지도 못한 이렇게 참혹한 형벌을 유럽의 문명국이 보여줬구나. 진짜 강도한테도 이렇게 벌을 주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나라를 구하는 의사라? 문명국이 천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역주 월남망국사)/ “逢이 死호되 法人이 逢의 屍를 厚賞으로 購호거늘 麾下에 指引호는자가 無호더니 法人이 諸山中에 遍求호야 得호 後 그 屍를 火油에 燒호고 殮灰호야 葬호를 慮호야 다시 其骸灰를 風에 颺散호니 古今以來에 如此히 慘刑酷狀은 初見호지로다”(현재본)

35) 이를테면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종미, 「越南亡國史와 국내 번역본 비교 연구 : 玄采本과 周時經本을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34, 중국인문학회, 2006, 514면. “그런데 현재본과 주시경본은 이처럼 프랑스를 강렬하게 비판한 내용을 번역문으로 실지 않았다. 그것은 아마도 역자들이 당시 조선의 상황과 일본의 반응에 대해 고려하였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 프랑스와 같은 입장에서 있었던 일본이 프랑스를 비판하는 글을 보면서, 조선인들이 그 자신에게 반기를 들 것을 두려워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번역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생략된 것은 프랑스에 대한 울울한 감정표현이나 월남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들이다. 마치 슬픈 감상에 젖는 것이 월남의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우리의 식민현실에 대응시키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듯이 압제에 대한 감상적 표현들은 생략되었던 것이다.

과연 그 돈으로 임금을 공양하는지 아닌지 월남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프랑스 사람이 다만 그 삼만 금의 돈을 아껴서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죽으래야 죽을 수도 없는 목숨만 남겨주는 것이다. 월남 사람은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 프랑스 사람은 돈은 받으나 인정이 있는척하고 좋은 명예를 남기고 싶어한다. 이는 프랑스 사람의 음험한 점이다.³⁶⁾

其實은 供養 與否를 越人이 不知하며,³⁷⁾

위 내용은 ‘프랑스 사람이 월남을 괴롭히고 약하게 하며 어리석게 한 사정’에 있는 것이다. 위에서 임금 공양여부를 알 수 없다는 말은 프랑스인이 월남의 임금을 유폐시킨 뒤에 그 임금을 봉양하기 위하여 삼만금을 가져갔는데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월남사람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작폐가 벌어진 것에 대해 판보이쩌우는 프랑스인의 음험함이 드러난다고 보았으나, 현재는 프랑스인에 대한 그와 같은 감정적 비판은 번역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프랑스인이 월남을 잠식하면서 왕의 권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백성의 돈을 착취하는 상황이 이미 자세하게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덧붙여서 프랑스인이 음험하다고 하는 것은 첩언에 해당될 뿐이라고 본 듯하다.

월남은 백성이 있는 나라이다. 프랑스 사람이 어떻게 월남 백성을 처치하는지 한 번 보자. 우리 동지가 이를 들어보고 격분에 탄자를 두들기고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진짜 눈과 귀도 없고 양심도 없는

36) 안명철·송엽희 역주,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55면.

37) 한국학문헌연구소편, 『한국개화기총서-역사전기소설』 5, 玄采 譯, 『越南亡國史 附滅國新論』, 서울아세아문화사, 1979, 34면.

비인간일 것이다. 나는 절대로 이럴 리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우리 동지는 잘 들어보라. 동지가 이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분노할까 두려워 말하고 싶지 않으나 말하지 않으면 우리 동지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럼 내가 죽을죄를 지은 셈이지 않겠는가? 죽을죄를 지은 것이다. 그래서 고민 끝에 말하기로 했다. 월남 백성은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나라에 세내는 것이 용전이라고 하는 것과 조전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뿐이었다.³⁸⁾

法人이 또 越南을 初取 時에는 美官禮賞으로 越人을 餌호야 獵犬과 佞鬼를 作호다가 及其歲月이 積호야 臭囊에 金帛이 多호면 罽 瑕垢를 吹索호야 其囊을 全奪호니 이에 保護 統監은 其利를 坐享호고 惡名은 此輩가 分任호니 其奸譎함이 古今에 無二호. 또 汝越南國人民아 法人이 何如케 越民을 處置호는지 또 仔細聽着홀지어다 越民이 國亡기前에는 其稅出호는 稅錢이 오작 庸과 租二者뿐이라³⁹⁾

위 내용은 ‘프랑스 사람이 월남을 괴롭히고 약하게 하며 어리석게 한 사정’에 있는 것인데, 프랑스인이 월남인을 앞잡이로 삼아 백성들의 고향을 찢은 일에 대해서는 간혹하다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현재는 판보이쩌우가 월남인이 프랑스인의 앞잡이가 되어 사냥개와 창귀 노릇을 한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할 수밖에 없는 비통함에 대해서는 번역하지 않는다. 그 대신 월남이 망하기 전에 있었던 세금을 언급하는 것으로 문맥을 이어 놓는다. 그런데 현재가 매우 공들여서 번역한 부분 중 하나가 세액에 관한 부분이다. 현재는 프랑스가 경제권을 장악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번역을 한다. 이는 경제권에 대한 권한을 잃었다는 사안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강조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리해보자면, 현재는 내용의 반복이나 서글픈 감정의 표현과 연결될 수 있는 경우들은 생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원래의 내용을 생략하는

38) 안명철·송엽휘 역주,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60면.

39) 한국학문헌연구소편, 『한국개화기총서-역사전기소설』 5, 玄采 譯, 『越南亡國史 附滅國新論』, 서울아세아문화사, 1979, 37면.

데 그치지 않고 원래의 의미를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현채는 구체적 사실 보고를 우선으로 하면서 문맥의 흐름은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 역점을 기울인다.⁴⁰⁾ 또한 의병활동을 하는 인물들의 생략에 있어서 현채는 처음부터 소략하게 소개되었거나 의병활동의 본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물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같다. 왜냐하면 치열하게 의병활동을 전개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프랑스인에게 공공의 적으로 두려움을 배가시켰던 의병들에 한정되어 소개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 대한 비평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들 수 있는 비판적 사안들은 현채는 생략하지 않는다. 현채가 생략한 것은 프랑스에 대한 감정적인 접근이나 감정적인 비판과 월남과 월남사람들에 대한 비감어린 표현들이다. 현채는 감정적인 부분들은 생략했지만, 프랑스로 경제권이 넘어가서 백성들이 내야할 세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세세하게 번역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채는 『월남망국사』를 번역하면서 그에 담겨진 반복적 표현, 치열해보이지 않은 사건, 감정적 비감은 생략하였는데 망국 상황과 직결되고, 거의 통계에 버금가는 구체적인 사안들은 충실히 전달한다.

『월남망국사』에는 부록으로 <월남소지>가 수록되어 있다. <월남소지>는 ‘지지(地誌)’, ‘건국의 연혁 및 중국’, ‘월남과 프랑스와의 교섭’, ‘프랑스의 월남’, ‘프랑스의 월남 통제와 중국과의 관계’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본다면 <월남소지>는 월남의 지역적 특성, 역사, 프랑스와의 보호조약 관련 사안, 월남의 요충지를 장악한 프랑스의 압제의 실제, 항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세력

40) 그렇기에 시나 격언 등을 생략하면 문맥이 끊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소개하거나 번역한 것이다. “古詩에云호되 腰下寶玦이 靑珊珊에 可憐王孫이 泣路隅라. 問之不敏道姓名호고 但道因若乞爲奴라 호더니 今에 亡國 貴胄가 其現狀이 果然 如此호도다.”/ “孟子가 言호되 國은 自伐호 後 人이 伐호다 호얏스니 이던 故로 數萬里 外洋의 法蘭西人이 來호얏노라”/ “起兵時에 法人에게 被擒호기 三次 脫獄호기 再次라 臨刑에 有詩호야 曰縱死己警胡虜魄이오 不降甘斷將軍頭라 호고 맞참니 不屈호니 法人이 其首를 梟호야 海에 投入호고.” (한국학문헌연구소편, 『한국개화기총서-역사전기소설』 5, 玄采 譯, 『越南亡國史 附滅國新論』, 서울아세아문화사, 1979, 7면, 21면, 23면.

확장에서 철로 중심의 세력 확장으로의 전환되는 현실 등을 보고한 글이라 할 수 있다. 량치차오는 이와 같은 〈월남소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앞으로 프랑스가 또한 중원을 노릴 것이어서 침략 의도는 끊이지 않는다. 우리 중국이 지금 분발하지 않으면 몇 년 후에 프랑스가 중국 전국에서 충분히 실력이 붙으면 그때는 우리가 꿈쩍도 못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밖에 또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또 무엇을 바라겠는가?⁴¹⁾

〈월남소지〉 자체는 월남의 실제 정황에 대한 보고라 할 수 있는데 그 보고의 끝에는 프랑스가 철로를 놓아 그 세를 확장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처럼 파죽지세로 프랑스가 그 영역을 확장하려는 실재를 자료를 통하여 다시 확인하면서 량치차오는 프랑스, 즉 유럽열강이 곧 중원도 노릴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함께 월남의 비극을 도외시하면 중국은 월남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분발할 것을 당부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감내해야할 사태 앞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월남소지〉 중에서 ‘월남과 프랑스와의 교섭’만을 수록하고, 나머지는 생략한다. 그 생략된 내용 대신 첨부한 것은 량치차오의 논설이었던 〈멸국신법론〉과 〈일본의 조선〉이다. 현재가 〈월남소지〉의 일부를 소개하고 생략된 자리에 추가한 것은 『월남망국사』를 이해한 후 그 의미를 심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멸국신법론〉은 량치차오가 〈월남망국사전록〉에서 강조했던 질문의 취지와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량치차오는 〈월남망국사전록〉을 통하여 무능한 임금과 제국의 앞잡이가 된 군사력 등이 망국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예둘러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멸국신법론〉은 지배층이 제국의 자본에

41) 안명철·송엽희 역주,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114면.

의하여 휘둘리고 중국에는 재정 및 치안 전반의 권리를 넘겨 버리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사태를 이집트, 폴란드, 인도 등의 실상을 통하여 고발한 논설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내용을 부록으로 첨부한 것은 월남이 내부에서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틈타서 외세의 작은 권력과 자본이 침투하면서 멸망하게 되는 사태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둔다. 그리고 경제권의 침탈을 고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에 동반되는 치안권의 침탈 문제도 제기되는데, 그 맥락에서 〈일본의 조선〉이 수록된다. 왜냐하면 〈일본의 조선〉은 일본 헌병대에 조선의 치안이 떠넘겨진 사태에 대한 탄식이 담긴 량치차오의 논설이기 때문이다.⁴²⁾ 이 또한 〈월남망국사전론〉에서 프랑스에 맞설 수 있는 월남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하였던 량치차오의 질문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본다면 〈월남소지〉 대신 〈멸국신법론〉과 〈일본의 조선〉의 첨부한 것은 원래의 내용의 변개가 아니라 심화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월남망국사전론〉의 취지와 〈월남망국사〉의 사태를 압축적으로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4. 결론

이 글은 『월남망국사』에 담긴 인물간의 대화 의도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본 현재의 사유 방식을 밝혀보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월남망국사전론〉에 나타난 량치차오의 질문을 통하여 량치차오가 주요하게 생각한 『월남망국사』 찬술의 취지를 읽고자 하였고, 『월남망국사』의

42) “조선정부에 개혁을 촉구하려던 지회에 일본 군대가 출동을 하고, 조선인 중 한 사람이 던진 돌에 일본 보병이 맞으면서 촉발된 일이었다. 이 일을 빌미로 일본은 공안질서를 내세우며 언론과 집회결사의 기회를 봉쇄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905년 1월 10일경에 한양 및 인근의 치안권이 일본헌병대에 완전히 넘어갔다.” 김남이, 『20세기 초 한국의 문명전환과 번역 -중역(重譯)과 역술(譯述)의 문제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63, 민족어문학회, 2011, 148면.

본문에 해당되는 〈월남망국사〉의 생략 현상을 중심으로 현재의 사유 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월남망국사전록〉에서 량치차오와 판보이쩌우의 대화 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중이 담겨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판보이쩌우는 월남의 비극적 사태가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정부’, ‘프랑스의 월남 장악과 횡포’, ‘미래를 저당 잡힌 백성의 현실’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였고, 량치차오는 ‘새롭게 일어나 백성을 규합할 지도자 혹은 정부’, ‘프랑스인에 대한 월남인의 투지’, ‘새로운 단체의 결성과 인재 양성의 전망’ 등을 질문 형식을 빌려 강조하고 있다. 량치차오의 질문에 판보이쩌우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된 두 인물간의 대화는 한편으로는 월남의 비극적 현실을 다른 한편으로는 월남의 새로운 미래로의 돌파구를 함의하면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현재는 『월남망국사』의 번역 과정에서 특히 〈월남망국사〉의 경우, 불필요한 내용의 반복을 견어내고 요약해줄 수 있는 감정적 표현을 줄이면서 번역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상황의 반복에 해당되는 시, 속담 등은 생략되었다. 또한 의병활동을 하는 인물들의 경우에도 치열하게 의병활동을 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뒤 10명만이 번역되었고, 프랑스인과 월남인에 대한 감정적인 비판과 비감어린 표현도 생략되었다. 그런데 현재가 매우 공들여 번역한 것은 세액에 관한 부분이다. 즉, 현재는 프랑스가 경제권을 장악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번역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현재는 『월남망국사』를 번역하면서 그에 담겨진 반복적 표현, 치열해보이지 않은 사건, 감정적 비감은 생략하였는데 망국 상황과 직결되고, 거의 통계에 버금가는 구체적인 사안들은 충실히 전달한다. 또한 현재는 부록인 〈월남소지〉의 경우에는 ‘월남과 프랑스와의 교섭’만을 수록하고, 생략이 이루어진 부분에는 〈멸국신법론〉과 〈일본의 조선〉 등을 첨부하였다. 이러한 첨부는 구국을 위해서는 경제권과 치안권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았던 량치차오의 취지를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멸국신법론〉와 〈일본의 조선〉의 첨부는 『월남망국사』를 압축적으로 수용하는 효과도 갖는다. 그런 점에서 현재는

『월남망국사』의 전체를 관류하는 량치차오의 취지를 심화 확장하면서 혁신과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자성이 요구되는 시대를 위한 『월남망국사』 번역본을 완성했다 할 수 있다.

■주제어: 『월남망국사』, 량치차오, 현재, 사유방식, 번역 과정, 인물간의 대화 의도

<참고문헌>

1. 자료

안명철·송엽희 역주, 『역주 월남망국사』, 태학사, 2007.

玄采 譯, 『越南亡國史 附滅國新論』, 『한국개화기총서-역사전기소설』 5, 한국학문
헌연구소편, 서울아세아문화사, 1979.

2. 논저

강영심, 「1900년대 동아시아의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 유통과 수용-한국, 중국,
월남을 중심으로-」, 『梨花史學研究』 49, 이화사학연구소, 2014, 79-118면.

고병권, 오선민, 「내셔널리즘 이전의 인터내셔널 : 『월남망국사』의 조선어 번역에
대하여」, 『한국근대문학연구』 21, 한국근대문학회, 2010, 293-323면.

김남이, 「20세기 초 한국의 문명전환과 번역-중역(重譯)과 역술(譯述)의 문제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63, 민족어문학회, 2011, 141-172면.

김승태, 「한말 캐나다장로회 선교사들의 한국선교에 관한 연구 : 1898 - 1910」,
한신대학교 석사논문, 2000.

김주현, 「〈월남망국사〉와 〈의대리건국3걸전〉의 첫 번역자」, 『한국현대문학연구』
29, 한국현대문학회, 2009, 9-41면.

노대환, 「18세기 후반~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베트남 인식」, 『朝鮮時代史學報』
58, 조선시대사학회, 2011, 139-169면.

량치차오 지음, 최형욱 옮김, 『량치차오,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 글항아리, 2014.
박상석, 「베트남 문학 전근대에서 근대로 : 『월남망국사』의 유통과 수용」, 『淵民學
志』 14, 연민학회, 2010, 81-104면.

박용찬, 「근대계몽기 재전당서포와 광문사의 출판과 그 특징 연구」, 『嶺南學』
6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7, 147-182면.

서여명, 「중국을 매개로 한 애국계몽서사 연구 : 1905~1910년의 번역 작품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10.

송명진, 「〈월남망국사〉의 번역, 문체, 출판」, 『현대문학의 연구』 42, 한국문학연구학
회, 2010, 171-203면.

- 송엽희, 「『越南亡國史』의 翻譯 過程에 나타난 諸問題」, 『語文研究』 34, 한국어문고
 육연구회, 2006, 183-204면.
- 우림걸, 「梁啓超 역사·전기소설의 한국적 수용」, 『한중인문학연구』 6, 中韓人文科
 學研究會, 2001, 66-94면.
- 윤대영, 「20세기 초 베트남 지식인들의 동아시아 인식 - 연대의식(連帶意識)과
 자민족중심주의(自民族中心主義) 분석(分析)을 중심(中心)으로-」, 『東
 亞研究』 53,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7, 293-326면.
- 이종미, 「〈越南亡國史〉와 국내 번역본 비교 연구 : 玄采本과 周時經本을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34, 중국인문학회, 2006, 499-521면.
- 이충호, 「1908年 경향신문에 게재된 『越南亡國史』에 대한 書評소개」, 『한국민족운
 동사연구』 1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5, 129-151면.
- 장효청, 「한국의 『월남망국사』 수용 양상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2013..
- 정환국, 「근대전환기 언어 질서의 변동과 근대적 매체 등장 of 상관성 : 근대계몽기
 역사전기물 번역에 대하여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와 『이태리건국삼
 걸전(伊太利建國三傑傳)』의 경우」, 『大東文化研究』 48, 성균관대학교 대
 동문화연구원, 2004, 1-32면.
- 최기영, 「『越南亡國史』에 關한 一考察」, 『東亞研究』 6,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5, 487-506면.
- 최기영, 「한말 천주교회와 『越南亡國史』」, 『아시아문화』 1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
 화연구소, 1996, 393-418면
- 최박광, 「『월남망국사』와 동아시아 지식인들」, 『人文科學』 36, 성균관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2005, 7-23면.
- 한영균, 「現代 韓國語 胎動期의 多重 翻譯 敘事物에 대한 기초적 연구」, 『국어사연구』
 19, 국어사학회, 2014, 125-169면.
- 허재영, 「근현대(1880~1945) 한국에 수용된 중국 학술 사상에 대한 연구」, 『인문과
 학연구』 5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55-83면.
- 허재영, 「근대 계몽기 량치차오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 역술(譯述)의 의미」,
 『우리말 글』 74, 우리말글학회, 2017, 245-268면.

황호덕, 「동아시아한문지식인의 반제국주의 연대와 투쟁-베트남 독립지사 관보이 찌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한문학연구소 제3회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2018, 83-101면.

[Abstract]

The intention of conversation between character and the Translator Hyeon Chae's way of thinking in 『Fall of Vietnam』

Kang, Mi-Jeo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Hyeon Chae's way of thinking through the intention of conversation and the process of translation between the characters in 『Fall of Vietnam』.

For this purpose, I sought to read the meaning of the editing of 『Fall of Vietnam』 that Liang Qichao thought were important through his questions presented in the book, and I tried to examine Hyeon Chae's way of thinking which is focusing on the omission phenomenon of 〈Fall of Vietnam〉 in the body of 『Fall of Vietnam』.

And, in the conversation between Liang Qichao and Phan Boi Chau, on the one hand i could observe the tragic reality of Vietnam, on the other hand observe the breakthrough of Vietnam into a new future. In particular, 'Innov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fighting spirit of the People' emphasized by Liang Qichao were also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of Hyeon Chae.

This is because Hyeon Chae is concentrating on transmitting concrete issues land in the crisis of national ruin, not in the tragic emotion obtained in translating 『Fall of Vietnam』. In addition, for the national salvation, the Liang Qichao's intention which was considered urgent in securing the economic rights and the right of security, was practiced in addition to the 〈New Law to Exterminate the Nation〉 and 〈Japan's Chosun〉. In this regard, it seems that Hyeon Chae have completed the translation of 『Fall of Vietnam』, while expanding the Liang Qichao's intention.

【Key words】 : 『Fall of Vietnam』, Liang Qichao, Hyeon Chae, Way of thinking, the Process of Translation, The intention of conversation between character

강미정

단국대학교 전임연구원

(04986)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4길 42-5

전자우편: superego0308@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2월 17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3월 9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1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